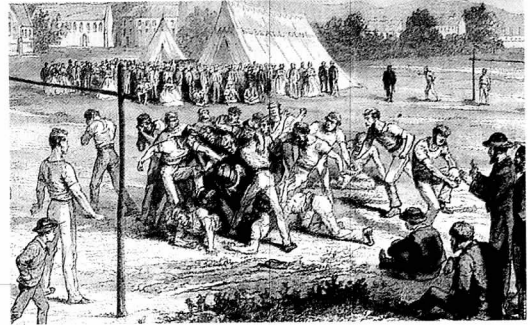


축구는 거세된 원시성을 회복하려는 열망

지름 20cm 공에 매혹된 지식인들의 기록



근대축구 성립기의 축구 경기를 묘사한 그림.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스타플레이어들의 화려한 기술, 박진감 넘치는 육박전, 공이 하얀 그물에 꽂힐 때 관중석에서 일제히 터져나오는 환호. 지름 20cm의 공 하나에 울고 웃으며 전세계가 그 공의 마력에 뜨겁게 빨려 들어간다. 분명 축구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놀이이자 최고의 볼거리임에 틀림없다.

축구에 열광하는 것은 단지 관중석의 관중들만이 아니다. 많은 지식인들도 축구에 열광해왔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축구에 찬사를 보내고 분석하면서 축구에 대한 자신들의 열광을 표현해왔다.

“축구는 인간성을 수호하며 군대 역할을 보충한다”

까뮈는 알제리의 대학 축구팀 골키퍼였다. 그는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직후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윤리나 의무란 축구선수로서 내가 지녀야 할 윤리나 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축구를 가장 인간적인 스포츠로 표현할 만큼 그의 축구 사랑은 남달랐다. 아놀드 하우저는 축구경기를 변증법적 미학과 연결시킨다. 그는 만년에 ‘변증법적 미학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의 방송대담에서 “대등한 팀끼리 펼치는 박빙의 축구경기를 보노라면 변증법의 오묘한 본질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프랑스 작가 장 지로드르는 1933년 출간된 《축구의 명예》 서문에서 경쟁으로서 축구와 전쟁을 비교하면서 “인류 자체와 혼동되지 않는 축구팀은 인간성을 수호하며 군대의 역할을 보충한다. 오늘날 한 국가의 평가가 군사력만큼이나 체력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만큼 축구팀은 국가평가의 한 자료로서 역할을 맡는다”며 축구는 최고의 스포츠라고 찬사를 보냈다.

“축구팀은 열한명 각각이 지닌 전략과 상상력으로 자립과 반동이라는 고유의 속성을 지닌 공에 원동력을 부여한다. 손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손을 사용할 경우 공은 더 이상 공이 아니고 축구선수는 더 이상 축구선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손은 속임수를 뜻한다.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속임 줄 아는 두 동물, 인간과 원숭이뿐이다. 공은 속임수를 용인하지 않는다. 별들과 같은 자전(自轉)만을 허용할 뿐이다.”

또다른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도 축구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1949년 프랑세즈의 프랑스 축구 50주년 기념 강연에서 축구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적진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한없이 복잡한 수학문제들이 매순간 이뤄지는 활발한 사고와 심광 속에서 제기됐다가 해결된다”고 표현하고, “축구와 삶이라는 두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은 모두 ‘의지’”라며 축구경기를 “행동의 훌륭한 학습장”이며 “품성의 훌륭한 학습장”이라고 말했다.

“축구선수는 현대의 사냥꾼이다”

물론 축구에 대해 지식인들이 찬사만 보내는 것은 아니다. 《털 없는 원숭이》(김석희, 영언문화사)의 지

은이 테즈먼드 모리스는 《월간 축구》에 연재한 글에서 축구를 인류학적으로 분석한다. 모리스는 축구의 원형을 원시시대 인류가 함께 사냥하던 모습에서 찾는다. 인류가 축구에 열광하는 것은 축구가 문명화 과정에서 거세된 원시성을 회복하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축구선수는 현대의 사냥꾼이다. 필드 위의 선수 중에서 사냥꾼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은 양팀의 골키퍼들이다. 이 두 골키퍼는 오히려 쫓기고 있는 목표물(짐승)을 공격수(사냥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미는 갈고리 역할을 한다. 다만 볼을 내칠 때에 한해 반대쪽에 있는 적의 골을 습격하는 사냥꾼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축구경기장에서 난동꾼일 뿐 아니라 사회문제조차 대두되는 홀리건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도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알랭 에렌베르그는 홀리가니즘을 “평등을 향한 열정”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스포츠는 일상 내부에 존재하는 가공의 상황인데, 이 가공적 상황 안에서 홀리가니즘은 “피지배 계층이 느끼는 사회적 지위 향상과 기득계층으로의 개인적 편입에 대한 체험적 불가능성, 스포츠에서 발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급격한 충돌을 일으키는 데서 비롯된다고 그는 분석한다.

여기에 김 훈도 한몫 거든다. 그는 최근에 펴낸 산문집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생각의 나무)에서 공으로 하는 놀이 가운데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고 털어놓는다.

“축구는 발길질에서 발길질로 이어지는 공의 행로가 기호화되지 않는다. 축구공은 끝끝내 인간의 몸의 질감으로 굴러간다. 미드필더로부터의 톱킥을 문전에서 받아낼 때, 공의 속도는 인간의 정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김장근기자